특별선교주일

연합감리교구호주일

긍휼을 실천하기: 하나님의 빛으로 살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 요한복음 3:21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나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확실히 드러냅니다."

— 포레스트 화이트,
플로리다주 레이크랜드제일감리교회 선교 디렉터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걱정하고 돕고자 합니다 ... 이제 제게는 단 하나의 꿈만 남아 있습니다. (아직 케르손에 살고 계신) 부모님이 손녀를 다시 만나보시는 것입니다."

— 타티아나, 우크라이나 난민

"어스키퍼스(EarthKeepers)들은 에너지, 식량 생산, 수자원 관리,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섬유 폐기물 등에 초점을 맞춘 현지인 운동과 지역사회 기반 대응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제니 필립스 목사, 세계선교부 환경 지속가능성 담당 디렉터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특별선교주일

연합감리교구호주일

긍휼을 실천하기: 하나님의 빛으로 살기



연합감리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은 연합감리교구호주일을 지키며 구호위원회(UMCOR)를 위한 특별선교헌금을 드립니다. 구호위원회는 우리를 대신해 재난에 대응하는 교단 산하 기관입니다.



수백만의 연합감리교인들이 함께 드리는 구호주일 특별선교헌금은 이 기관의 운영비를 충당합니다. 자원봉사자 훈련 비용부터 사무실의 전등을 켜는 일에 이르기까지, 구호주일 특별선교헌금은 구호위원회의 비용을 지원하며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신속히 대응하게 합니다. 우리의 후원금은 구호위원회가 다년간 축적한 지식으로 구축한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 전문적 리더십, 숙련된 봉사자들 덕분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변화된 관점을 갖게 되고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연합감리교회 특별선교주일 예물은 섬김의 리더십, 지역 사회 구축 사업 및 평화와 정의의 사역을 후원하는 데 사용되며, 이를 통해 활기찬 사역을 기념합니다. 이러한 중요 사역들을 위해 우리의 자원을 집중하는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힘을 얻어 함께 일하게 합니다.

넉넉한 연합감리교구호주일 특별선교헌금을 통해 긍휼을 실천하고 소망의 등대가 되어 하나님의 빛을 어둠 가운데 비추세요.

후원 방법:
체크 메모난에 “연합감리교구호주일”이라고 적어 소속 교회에 헌금하세요. UMC.org/SSGive 에서 온라인으로 후원하시거나 월 정기 후원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